

여대생의 브래지어 착용과 선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earing and Preferences of Brassier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반홍우 · 최종명 · 권수애 · 손부현*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Pan, Hong Yu · Choi, Jong Myoung · Kweon, Soo Ae · Sohn, Boo Hyun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o provide basic data to manufacture superior brassieres, we performed a survey on the wearing and buying habits, and preference of functions and materials of brassieres for 189 women subjects in their twent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Style and size are the most important in purchasing brassieres. Flat breasted and sagging breasted subjects were dissatisfied in the fit of the upper cup. 70% of the subjects were ignorant of their brassiere size. Sagging breasted subjects were less satisfied with smoothness, softness, and weight when wearing their bras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types. Conical type breasts were common amongst women in their 20s. They are more likely to wear size 75A and 80A where the full bust girth is 10cm larger than the under-bust. They preferred demi cup brassieres with thin or moderate padding to full cup brassieres with thick padding. On the other hand, 56.8% of subjects wore brassieres all day. The subjects were dissatisfied with the slipping down of the shoulder straps. Large-breasted subjects were concerned more with dampness and the fit on the center front of the brassiere, and brassieres with too thick padding had a poor fit on the center front. Sports-brassieres which fit close to the skin and used stretchable fabric caused more itching and dampness and dissatisfaction in removal of the brassiere.

Keywords : breast volume, size of brassiere, preference

I. 서론

의복은 제2의 피부로서 기능성, 심미성 및 쾌적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속옷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의복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체내의 분비물을 흡수하고 외기의 오염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위생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속옷에 대한 요구는 일반 의류보다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용적 측면에서 보건의 위생적 기능과 색, 무늬, 디자인, 소재감을 중시한 감각적 기

능이 필요하다(김순분, 1991). 현대사회에 와서 여성들의 속옷에 대한 요구는 더욱 다양화되었다. 브래지어는 여성 속옷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가슴을 지지하고 보호하여 가슴 울리고 모아주는 기능 뿐 아니라 볼륨감 있게 외형을 향상시키는 미학적인 기능을 매우 중요시하고, 인체와 직접 밀착된 의복이라서 소재에 대한 쾌적함도 중요시 된다. 즉 브래지어는 생리학적 보호와 지지, 미적인 외관보조, 감각적인 쾌적함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현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Sohn, Boo Hyun
Tel: 043-261-2792, Fax: 043-274-2792
E-mail: boohshon@hanmail.net

브래지어에 관한 연구는 브래지어의 기능성(강여선 1991; 최혜선, 손부현, 1996)과 브래지어 디자인(하수진, 이경희, 1999)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착용실태에 관해서는 성인여성(박은미, 손희순, 1996), 유방암 환자(이경미, 최혜선, 2001), 사춘기 소녀(임정란, 1997)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대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로는 박지선 외(1997)의 착의 적합성 평가와 김양원, 이미진(2001), 김정은(1991), 고태희(1999) 등의 착용실험연구가 있다.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브래지어의 착용동기, 기간, 구매실태, 불만/불편상황을 조사하여 연령이나, 학년, 체형, 가슴 형태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또 브래지어의 가슴 지지력이나 원하는 볼륨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브래지어 패턴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활발한 신소재 개발로 이러한 신소재를 활용하여 브래지어를 개발하려는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은경 외(2003)는 시판 브래지어 날개 소재의 피로도 및 질감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착용감 및 착용효과(이경화, 2000), 의복압에 대한 연구(김양원, 이미진, 2002)가 있다. 최근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브래지어도 신소재 개발과 다양한 브래지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치수 및 질감에 대한 브래지어 구매실태, 가슴유형과 브래지어 컵 및 패드에 따른 착용감 등 다각적 측면에서의 소비자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슴유형 및 사이즈, 브래지어 구매와 착용실태, 질감 및 착용감에 대하여 조사, 분석함으로써 가슴유형별 선호하는 브래지어 유형과 패드유형, 또 질감 및 착용감에서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브래지어 생산에 있어서 가슴유형별 브래지어 패턴개발과 유형에 따른 치수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자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여자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009년 5월부터 6월 중에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여 그 중 불완전하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189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조사대상자의 가슴유형은 조사대상자 본인이 설문지에 제시된 4가지 유형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가슴유형은 박유신(2002)의 선행연구에서와 일본 와코르 인간과학연구소의 유방형태분류인 납작형, 원추형, 돌출형, 하수형 I, 하수형 II로 분류한 것에 기초하여 본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20대 초반 여성이므로 지나친 하수형II를 제외한 납작형(유륜이 있는 위치만 가슴이 커진 경우), 원추형(모든 조직이 발달하여 있고 (유두-유륜) 복합체가 유방 밑주름 보다는 위에 있는 경우), 돌출형(모든 조직이 발달하여 있으나 복합체가 유방 밑주름 혹은 그 아래 1cm내에 위치한 경우), 하수형(모든 조직이 발달하여 있고 복합체가 유방 밑주름의 1cm아래에 위치해 처져 있는 경우)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브래지어 사이즈 인식, 구매현황, 착용 실태,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16문항은 김영숙(1999), 박유신(2002), 남윤자 외(2002)를 참고하였고, 착용감 및 브래지어 소재 질감에 관한 19문항은 박지선 외(1997), 이경화, 김정희(2001), 한은경 외(2003)를 참고로 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특히 브래지어 소재의 질감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표면평활감은 매끄럽다/거칠다로, 온습도는 시원하다/후덥지근하다, 유연감은 부드럽다/ 딱딱하다, 중량감은 가볍다/무겁다, 두께는 얇다/ 두껍다의 5쌍의 형용사로 구성하였고, 컵 형태의 유지성에 대해 '컵이 정형적이다/ 컵 변형이 용이하다'는 문항을 더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 각 문항에 SPSS 12.0 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ANOVA 및 Duncan의 다중비교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브래지어 구매 실태

1) 브래지어 구입시 중요 요인

브래지어 구입시 브래지어의 디자인 요소 이외에도 사이즈, 가격, 브랜드에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브래지어 구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

하여 변인의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1순위에서는 사이즈 (44.5%), 형태(39.7%)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2순위에서도 역시 형태, 색상, 사이즈가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 있다. 3순위에서는 브랜드를 제외한 모든 구성요소들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브래지어의 형태와 사이즈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색상, 소재, 가격, 브랜드 순으로 보였다.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손희정(1992)의 연구에서 브래지어 선택시 치수, 활동성, 착용감, 디자인 및 스타일, 가격, 색상, 상표, 세탁관리성, 장식, 유행의 순서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속옷 특히 파운데이션의 경우 피트니스에 의한 기능성이 중요하므로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형태 및 사이즈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디자인 뿐 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이 중요시 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브래지어 구입시 형태에 있어서 ‘두 컵 사이의 간격’, ‘컵의 볼륨’, ‘컵의 형태’, ‘상컵에서의 들뜸’, ‘하컵의 와이어 모양’, ‘날개 길이’ 등 6가지 구성요소들의 적합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브래지어 구입시 형태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보면 컵의 형태(3.41), 상컵의 들뜸(3.28), 컵의 간격(3.21), 컵의 볼륨(3.17), 와이어 모양(3.08), 날개길이(2.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패드와 컵의 형태개발 뿐만 아니라 유방의 형태적 유형화와 형태적 특징을 반영시켜 유형별로 치수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한국 여성의 브래지어 컵 사이즈는 커지고 젓가슴 아래둘레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어패럴 뉴스, 2006) 이는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에 따른 체형의 서구화와 일반화된 가슴성형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실용화를 위해서 형태적 유형화와 치수규격이라는 두 가지

<표 2> 가슴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구입시 느끼는 문제점

항목	가슴 유형					평균	F값
	납작형	원주형	반구형	돌출형	하수형		
컵의 간격	3.25	3.21	3.18	3.20	3.33	3.21	.07
컵의 볼륨	3.31 a	3.13 a	3.20 a	2.40 b	3.67 a	3.17	1.62*
컵의 형태	3.53	3.38	3.38	3.20	3.83	3.41	.49
상컵의 들뜸	3.84 a	3.16 b	3.13 b	3.00 b	3.50 a	3.28	2.91*
와이어 모양	3.09	3.07	3.05	3.20	3.33	3.08	.16
날개 길이	3.06	2.82	2.93	3.00	3.33	2.90	.88

*p<.05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로 평가됨

a, b : Duncan사후분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브래지어 치수규격의 설정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가슴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형태에 대해 느끼는 문제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컵의 볼륨’과 ‘상컵의 들뜸’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2 참조). 컵의 볼륨은 가슴이 큰 유형인 돌출형을 제외하고 구입시 느끼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 납작형 가슴과 하수형 가슴인 경우에 상컵이 들뜬다는 느낌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볼륨 보완을 위한 공기주머니나 몰드 브래지어 등이 출시되고는 있으나 보조물의 형태가 유방형태와 맞지 않거나 과장된 실루엣이 연출되어 빈약한 가슴이나 하수형으로 상부가 빈약한 형태의 가슴인 경우 상부에서 들뜨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방이 흉곽과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며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유방형태의 복곡면적 특징에 대한 연구와 몰드의 형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이현영 외, 2003).

2) 브래지어 치수 선택

자신이 착용하는 브래지어의 치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대충 알고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가 70% 이상의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홍정민(1988)의 대구시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신의 치수에 대한 인식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가 52.5%, ‘대강 알고 있다’가 45.7%를 보여 구매시 고려하는 중요요인이 치수였던 것과는 달리 브래지어 치수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브래지어 구입시 중요 요인 단위(명%)

브래지어 구입시 중요 요인	중요시 순위			상대빈도*
	1순위	2순위	3순위	
사이즈	84 (44.5)	44 (23.2)	29 (15.3)	369
형태	75 (39.7)	62 (32.8)	35 (18.5)	384
색상	11 (5.8)	49 (25.9)	40 (21.2)	171
소재	11 (5.8)	17 (9.0)	32 (16.9)	99
가격	5 (2.6)	14 (7.4)	44 (23.2)	87
브랜드	3 (1.6)	3 (1.6)	9 (4.8)	24
전체	189(100.0)	189(100.0)	189(100.0)	

* 상대빈도: (1순위*3)+(2순위*2)+(3순위*1)로 산출하였음.

구입시 치수 선택의 방법은 대부분 '전에 선택하던 사이즈로 구입'(56.8%), '판매원이 원하는 사이즈로 구입'(12.6%), '자신의 치수를 잰 후 구입'(1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에 구입하던 사이즈대로 구입할 경우 전에 구입하던 사이즈의 적합성도 알아보아야 하지만 1999년 한국산업규격의 브래지어 치수규격(KS K 0070, 1999)이 기존의 치수규격에서 컵 치수에 대한 개정(가슴 둘레와 밑가슴둘레의 치수차이가 10cm인 B컵이 A컵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개정된 치수규격은 현재 일부 파운데이션 제조업체만이 이를 시행하고 있어 브래지어 구매시 치수의 불만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브랜드마다 같은 치수로 표기하더라도 각기 다른 패턴을 갖고 있어 용량 및 치수의 단일화가 필요한 상황(박유신, 2004)이며 또 연령 증가에 따라 체형변화가 따르므로 적합한 치수의 브래지어 구입을 위해서는 현재 권장되고 있는 착용해 본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브래지어 구입시 치수선택의 문제를 보면 브랜드마다 같은 호칭이라도 실제치수가 다름(32.6%)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 브래지어 생산에 대한 정확한 표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파운데이션 제조업체는 표준화된 치수규격과 브래지어 패턴교육의 부재로 여전히 디자이너, 모델리스트의 개개인의 기술력에 의존하여 제품기획을 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정확히 자신의 치수를 몰라서(19.5%)와 어느 정도가 잘 맞는지 몰라서(18.9%)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브래지어 구매 실태

항목	내용	빈도(명)	비율(%)
자신의 치수에 대한 인식	잘 알고 있다.	38	20.0
	대충 알고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	137	72.1
	모른다.	13	6.8
치수 선택 방법	입어보고 구입	18	9.5
	치수를 잰 후 구입	22	11.6
	판매원 원하는 사이즈로 구입	24	12.6
	전에 선택하던 사이즈로 구입	108	56.8
	짐작으로 구입	17	9.0
치수 선택의 문제점	정확히 자신의 치수를 몰라서	37	19.5
	원하는 치수 찾기가 어려워서	21	11.1
	브랜드마다 같은 사이즈라도 크기가 달라서	62	32.6
	어느 정도가 잘 맞는지 몰라서	36	18.9
	느낀 적이 없다	33	17.4

3) 브래지어 질감

브래지어 질감에 대한 평가를 6가지 문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가장 좋은 느낌(예: 매끄럽다)의 점수가 5로부터 가장 좋지 않은 느낌(예: 거칠다)의 점수 1로 하여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표면평활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온습감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브래지어의 표면이 '매끄럽다'고 느끼는 반면에 청량감은 낮게 평가하였다.

가슴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질감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보면 표면 평활감과 유연감, 중량감 등 3가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세 항목 모두에서 돌출형과 하수형 가슴의 경우가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나타내었다.

특히 돌출형이나 하수형에게 있어서 브래지어 질감에 대한 평가가 낮게 평가된 것은 기존의 브래지어가 신체 조건이 가장 이상적인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에 기인되며 납작형의 경우 앞서 상컵이 들뜨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 외의 문제점이 없는데 반해 돌출형이나 하수형 등 표준형에서 많이 벗어난 가슴유형은 그만큼 브래지어에 대한 불만족이 크게 되어 질감에 대한 착용감 평가에서도 낮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가슴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질감

브래지어 질감	가슴 유형					평균	F값
	납작형	원주형	반구형	돌출형	하수형		
표면평활감	4.34 a	4.25 a	3.70 b	3.40 b	3.50 b	4.10	4.47**
온습감	3.78	3.51	3.50	3.00	2.33	3.50	1.98
유연감	4.22 a	4.20 a	3.78 a	3.40 b	3.00 b	4.05	4.04**
중량감	4.03 a	4.09 a	3.80 a	3.00 b	3.00 b	3.96	3.13*
두께	3.28	3.70	3.33	3.60	3.70	3.54	1.37
형태유지성	3.38	3.63	3.38	3.80	3.00	3.52	1.02

* $p < .05$, ** $p < .01$

a, b : Duncan 사후분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2. 브래지어의 선호도와 착용

1) 가슴분포와 브래지어 선호도

조사된 20대 여자대학생들의 브래지어 착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슴 유형, 착용하는 브래지어 사이즈,

선호하는 브래지어의 컵 스타일과 즐겨 착용하는 브래지어의 볼륨업패드 구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가 인지하는 자신의 가슴유형을 분석한 결과 원추형(55.8%), 반구형(21.1%), 납작형(16.8%), 하수형(3.2%), 돌출형(2.6%)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볼륨이 보통정도인 원추형이 가장 많았고, 반구형과 가슴 볼륨이 작은 납작형 순으로 나타났다. 나미항(2000)의 20세에서 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유방의 유형이 원추형(34.0%), 하수형(27.2%), 반구형(19.0%), 납작형(17.7%), 방추형(2.0%)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20대 초반이며, 젊은 여성에 해당하므로 하수형과 돌출형의 경우가 많지 않았다.

착용하는 브래지어 사이즈는 75A 사이즈부터 90B까지 다양하였으며, 75A(33.7%), 80A(24.7%), 75B(13.7%), 85A(12.6%)의 순으로 A컵 치수 착용자인 75A와 80A가 58.4%로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여대생이 선호하는 브래지어 컵 유형을 보면 3/4 컵(70.5%)이 가장 많았으며 풀컵(10%), 1/2컵(10%), 저중심형(7.4%)과 스포츠형(1.6%)의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에서는 풀컵보다는 3/4컵을 선호하였으며 스포츠형 브래지어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김양원(2001)에서 나온 결과와 유사하며 20대 소비자들은 브래지어를 선택할 때 보정효과나 기능성을 중시하며, 착용시 신체에 부담이 적은 브래지어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볼륨 패드의 유형은 전체적으로 얇은 기본패드(이하 기본 패드로 칭함)와 약간의 볼륨 패드(이하 저 볼륨 패드로 칭함), 전체적으로 두꺼운 패드(이하 고 볼륨 패드로 칭함), 아랫부분에 특히 볼륨을 준 패드(이하 하부 볼륨 패드로 칭함)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는데 기본패드와 저 볼륨 패드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따라서 20대 초반 여성들의 가슴유형은 원추형, 반구형, 납작형 순으로 많았으며 가슴사이즈는 75A, 80A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선호하는 브래지어 형태는 3/4컵형, 패드 형태는 기본 및 저 볼륨패드로 나타났다.

가슴유형별 선호하는 컵을 <표 6>에서 살펴본 결과 가슴유형별 착용하는 컵 유형과 패드유형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든 유형에서 3/4컵을 착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선호하는 패드에서도 납작형은 저 볼륨패드 > 기본패드 > 하부 볼륨패드 > 고 볼륨패드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원추형과 반구형은 기본패드와 저 볼륨패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돌출형과 하수형은 기본패드 착용자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시간 동안에 브래지어를 착용하는지에 관해 조사

<표 5>가슴분포와 브래지어 컵 및 패드의 선호도

항목	내용	빈도(명)	비율(%)
가슴유형	납작형	32	16.8
	원추형	106	55.8
	반구형	40	21.1
	돌출형	5	2.6
	하수형	6	3.2
착용사이즈	75A	64	33.7
	75B	26	13.7
	75C	1	0.5
	80A	47	24.7
	80B	17	8.9
	80C	5	2.6
	85A	24	12.6
	85B 이상	1	0.5
선호브래지어 컵 유형	풀컵형	19	10.0
	3/4 컵형	134	70.5
	1/2 컵형	19	10.0
	스포츠형	3	1.6
	저중심형	14	7.4
선호 볼륨업패드유형	기본패드	95	50.0
	저 볼륨패드	79	41.6
	고 볼륨패드	5	2.6
	하부 볼륨패드	10	5.3

***p<.001

<표 6> 가슴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컵과 패드의 선호도
단위: 명(%)

구분	납작형	원추형	반구형	돌출형	하수형	x ²
컵 유형	풀컵	2 (6.3%)	10 (9.4%)	5 (12.5%)	1 (20.0%)	
	3/4 컵	23 (71.8%)	77 (72.6%)	27 (67.5%)	3 (60.0%)	4 (66.6%)
	1/2 컵	5 (15.6%)	10 (9.4%)	3 (7.5%)	1 (20.0%)	0
	스포츠형	0	1 (0.9%)	1 (2.5%)	0	1 (16.6%)
	저중심형	2 (6.3%)	8 (7.5%)	4 (10.0%)	0	0
패드 유형	기본패드	11 (34.4%)	55 (51.9%)	19 (47.5%)	4 (80%)	6 (100%)
	저 볼륨패드	14 (43.8%)	45 (42.5%)	19 (47.5%)	1 (20%)	0
	고 볼륨패드	2 (6.3%)	2 (1.9%)	1 (2.5%)	0	0
	하부 볼륨패드	5 (15.6%)	4 (3.8%)	1 (2.5%)	0	0

<표 7> 잠잘 때의 브래지어 착용

항목	내용	빈도(명)	비율(%)
자는 시간에 착용 실태	착용하지 않는다	48	25.3
	가끔 착용 한다	33	17.4
	항상 착용 한다	108	56.8

한 결과 56.8%의 여대생들이 브래지어를 잠 잘 때에도 계속 착용(표 7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김양원 외, 2001)에서 50%이상이 잠자는 시간에도 착용한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몇 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은 위생학적 측면에서 유해할 수 있으며 브래지어를 오랜 기간 착용하는 여성은 착용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 브래지어 착용감

브래지어 착용시 불편감에 대한 평가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로 평가된 다음 항목에서 전체적으로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착용감은 '보통이다'에 해당하였다. 이는 20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이며, 그 중에 가장 높

<표 8> 가슴 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착용감

브래지어 착용감	가슴 유형						F값
	납작형	원추형	반구형	돌출형	하수형	평균	
피부를 자극한다.	2.50	2.53	2.70	3.00	2.67	2.58	.54
착용 시 압박감이 있다.	3.03	2.93	3.08	3.40	2.83	2.99	.41
땀이 찬다.	2.78 b	3.16 a	2.80 b	3.08 a	3.33 a	3.04	2.51*
동작 시 가슴 밑 부분이 당겨 올라간다.	3.00	2.87	2.68	3.40	3.00	2.87	1.01
어깨 끈이 흘러내린다.	3.47	3.42	3.20	3.60	2.83	3.37	1.10
어깨가 눌린다.	2.41	2.37	2.45	2.80	2.83	2.42	.68
입고 벗기가 불편하다.	2.53	2.36	2.60	2.40	2.33	2.44	.72
착용 시 앞 중심이 들뜬다.	3.19 a	2.74 b	2.55 b	3.40 a	2.33 c	2.78	3.06*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p < .05$

a, b, c : Duncan 사후분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은 접수를 나타낸 것은 어깨끈이 흘러내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 유형에 따른 착용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땀이 찬다'와 '착용 시 앞 중심이 들뜬다'는 두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땀이 찬다'는 문항에서 돌출형, 하수형, 원추형이 납작형이나 반구형보다 높게 평가되어 가슴볼륨이 큰 유형일수록 땀이 차는 것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착용 시 앞 중심이 들뜬다'는 문항에서는 돌출형과 납작형에서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표준형에 맞추어진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돌출형의 경우 앞으로 두드러진 가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중심이 들뜨게 되고, 반면에 납작형의 경우 빈약한 가슴유형으로 브래지어 컵과의 거리감 때문에 들뜬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가슴 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제작이 요구된다.

패드 유형별 브래지어 착용감을 평가한 결과 <표 9>와 같으며, '착용시 앞 중심이 들뜬다'는 문항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볼륨이 있는 고 볼륨패드나 저 볼륨 패드가 기본패드나 허부 볼륨패드보다 앞중심이 더 들떠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앞에서 납작형이나 하수형의 가슴유형에서 '상컵이 들뜬다'고 평가된 내용과 일맥상통한 결과로, 볼륨감을 증가하기 위하여 두께감 있는 패드를 선택하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보조물의 형태가 상부에서 들뜨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앞중심에서도 들떠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유방이 흉곽과 자연스럽게

<표 9> 패드 유형별 브래지어 착용감

브래지어 착용감	패드 유형				F값
	기본패드	저 볼륨패드	고 볼륨패드	허부 볼륨패드	
피부를 자극한다.	2.57	2.61	2.20	2.60	0.29
착용 시 압박감이 있다.	2.99	3.05	2.60	2.70	0.62
땀이 찬다.	3.09	2.97	3.00	3.10	0.23
동작 시 가슴 밑 부분이 당겨 올라간다.	2.79	2.95	3.20	2.80	0.64
어깨 끈이 흘러내린다.	3.25	3.53	2.80	3.40	2.02
어깨가 눌린다.	2.43	2.41	2.60	2.30	0.15
입고 벗기가 불편하다.	2.34	2.54	2.20	2.70	1.32
착용 시 앞 중심이 들뜬다.	2.57 b	3.00 a	3.40 a	2.70 b	3.82*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p < .05$

a, b : Duncan 사후분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운 곡선을 그리며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요구되며 전체적으로 두꺼운 패드보다 기본패드나 아랫부분만이 두꺼운 볼륨이 들어간 하부 볼륨패드가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브래지어 컵 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착용감을 비교한 결과는 <표 10>과 같으며, 피부자극과 가슴 밑부분의 당겨 올라감, 착용편리성에 관한 문항인 ‘입고 벗기 불편함’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스포츠 브래지어의 경우 여밈장치 없이 위로 입고 짓도록 되어있거나 컵이나 날개부위 모두 신축성 소재로 되어있어 입고 벗기가 더 불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저중심형 브래지어는 입고 벗기에 가장 편한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컵 유형에 따라서 착용감을 보았을 때 스포츠형 브래지어에 대한 평가가 ‘피부를 자극한다’, ‘땀이 찬다’, ‘입고 벗기가 불편하다’ 등에서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앞서 선호하는 브래지어 유형에서 스포츠형 브래지어가 가장 낮은 비율(1.6%)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하며, 스포츠형 브래지어가 신축성으로 운동시 밀착되어 움직임에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밀착으로 인하여 이처럼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이 차거나, 입고 벗기에 불편함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10> 컵 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착용감

브래지어 착용감	컵 유형					F값
	풀 컵	3/4 컵	1/2 컵	스포츠형	저중심형	
피부를 자극한다.	2.68 b	2.62 b	2.21 b	3.67 a	2.29 b	2.17*
착용 시 압박감이 있다.	3.32	2.98	2.74	3.00	3.00	0.80
땀이 찬다.	3.11	3.04	3.16	4.00	2.57	1.62
동작 시 가슴 밑 부분이 당겨 올라간다.	3.26 a	2.91 a	2.47 b	3.00 a	2.43 b	2.62*
어깨 끈이 흘러내린다.	3.42	3.43	3.00	3.00	3.21	1.17
어깨가 눌린다.	2.58	2.48	2.21	2.00	2.00	1.59
입고 벗기가 불편하다.	2.68 b	2.45 b	2.37 b	3.67 a	1.86 c	3.90**
착용 시 앞 중심이 들뜬다.	2.89	2.83	2.63	2.33	2.43	0.90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p < .01$ * $p < .05$ a, b, c: Duncan 사후분석 결과로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브래지어의 착용 및 구

매 실태를 알아보고 브래지어의 기능과 질감에 선호도를 살펴보고 불편요인을 밝혀내어 앞으로 더욱 기능적이고 쾌적한 브래지어의 생산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되었다.

1. 브래지어 구입시 브래지어의 형태와 사이즈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브래지어 형태에서의 문제점은 컵의 형태, 상컵의 들뜸, 컵의 간격 등이며, 납작형 가슴과 하수형 가슴의 경우 ‘상컵이 들뜬다’는 문제점을 크게 느끼고 있어 최근 볼륨 보완을 위한 패드나 몰드 브래지어가 유방형태와 맞지 않거나 과장된 실루엣으로 상부에서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 유방의 형태적 유형화와 형태적 특징을 반영한 유형별 치수구분이 요구되었다.

2. 자신의 브래지어 치수는 ‘대충 알고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가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아직도 젊은 여성들이 브래지어 치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으며, 구입시 치수 선택은 대부분 ‘전에 선택하던 사이즈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이즈에서의 어려움은 ‘브랜드마다 같은 사이즈라도 크기가 달라서’, ‘정확히 자신의 치수를 몰라서’, ‘어느 정도가 잘 맞는지 몰라서’ 등으로 나타나 브래지어 파운데이션 제조업체의 표준화된 치수규격과 자신의 치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브래지어의 질감에 대한 평가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브래지어의 표면이 ‘매끄럽다’고 느끼며, 반면에 ‘후덕지근하다’라는 온습감에 대해서는 불만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슴유형에 따라 표면 평활감과 유연감, 중량감에 차이를 보여 하수형 가슴의 경우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기존의 브래지어가 신체조건이 가장 이상적인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을 기준으로 제작되고 있어 돌출형이나 하수형 등 표준형에서 많이 벗어난 가슴유형은 그만큼 브래지어에 대한 불만족이 크게 되어 질감에 대한 착용감 평가에서도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대상자의 가슴유형은 원추형>반구형>납작형>하수형>돌출형 순이었으며, 착용사이즈는 75A>80A>75B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브래지어 컵 유형은 3/4 컵이며, 반면에 스포츠형 브래지어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선호하는 패드 유형은 전체적으로 얇은 기본 패드와 약간의 볼륨 패드로 나타났다. 모든 가슴유형에서 3/4컵 착용자가 많았으며 납작형은 저 볼륨패드>기본패드>하부 볼륨패드>고 볼륨패드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원추형과 반구형은 기본패드와 저 볼륨패드를, 돌출형과 하수형은 기본패드를 많이 착용하였다. 한편 56.8%의 여

대생들이 브래지어를 잘 때에도 항상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브래지어 착용에 있어서는 어깨끈이 흘러내리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가슴 유형에 따른 착용감에서는 돌출형, 하수형, 원추형이 납작형이나 반구형보다 땀이 찬다는 느낌이 더 크게 나타나 가슴볼륨이 큰 유형일수록 땀이 차는 것을 더 많이 느끼며, '착용 시 앞 중심이 들뜨다'는 문항에서도 돌출형과 납작형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표준형에 맞추어진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돌출형의 경우 앞으로 두드러진 가슴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 중심이 들뜨게 되고, 납작형은 빈약한 가슴유형으로 브래지어 컵과의 거리감 때문에 들뜨다고 평가되어 가슴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제작이 요구되었다.

6. 전체적으로 두꺼운 볼륨 업 패드인 '고 볼륨패드'가 다른 패드에 비하여 앞중심이 더 들떠있으며, 스포츠형 브래지어가 여밈장치 없이 위로 입고 벗도록 되어있어 벗기가 더 불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피부를 자극한다', '동작 시 가슴 밑 부분이 당겨 올라간다'에서도 다른 유형보다 낮은 평가를 보여 스포츠형 브래지어가 신축성 소재로 되어 있어 밀착으로 인한 피부를 자극하거나, 입고 벗기에 불편함 등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설문을 통하여 자신의 가슴유형을 분류한 것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가슴유형별 브래지어 개발 및 유형별 치수체계 정립을 위해 간단한 측정으로 가슴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이나 간단한 치수항목으로 적합한 브래지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더욱 연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가슴볼륨, 브래지어 사이즈, 선호도

참 고 문 헌

- 강여선. (1991). 기능적 Brassiere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태희. (2000). 20대 비만여성의 유방형태와 브래지어 착용실태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분, 김효은. (1991). 여성의 속옷착용에 관한 조사연구 (1). 가정생활연구, 6, 92-97.
- 김양원, 이미진. (2001). 20대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7, 113-119.
- 김양원, 이미진. (2002). 브래지어 착용시 흉부에서의 의복압 분포. 복식문화연구, 10(2), 178-285.
- 김영숙. (1999). 성인여성의 인지적, 실제적 유방유형과 브래지어 착용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은. (1991). 시판 파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불만족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미향, 권윤희, 김미선. (2007). 브래지어 착용 실태조사Ⅲ. 청대학술논집, (9), 277-297.
- 남윤자, 최경미, 정의승, 윤명환, 이준옥. (2002). 브래지어 착용에 따른 가슴형상변화에 관한 연구. 인간공학회지, 21(4), 117-130.
- 박유신. (2002). 20대 여성의 브래지어 치수설정 및 의복압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유신, 김선미, 김은란. (2004). 20대 여성의 유방 부피 측정치에 따른 브래지어 컵의 분류. 대한인간공학회 23(2), 93-104.
- 박은미, 손희순. (1996). 20대와 40대 여성의 유방형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2), 85-97.
- 박지선, 박희주, 이민경, 이지은, 지청천. (1997).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브래지어 착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의류환경학과 생활과학, 1(30), 5-9.
- 손희순. (1992). 브래지어 및 거들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論文集, 32, 18-27.
- 손희정. (1992). 여중고생의 파운데이션 착용현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원우회 원우논문총, 10집, 11-18.
- 이경미, 최혜선. (2001).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에 대한 착용실태조사. 한국의류학회지, 25(4), 697-706.
- 이경화. (2000). 시판 소녀용 브래지어 착용실험. 한국 복식학회지, 50(3), 73-86.
- 이경화, 김정희. (2001). 시판 브래지어의 착용감 및 착용효과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5(8), 69-79.
- 이현영, 이옥경, 홍경희. (2003). 3차원 측정시스템을 이용한 유방부피 및 유저면적의 측정. 한국의류학회지, 27(2), 270-276.
- 임정란. (1998). 사춘기 소녀의 유방성장 특성분석 및 브래지어 개발을 위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선, 손부현. (1996). 기능적 Sports-brassiere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3), 452-466.
- 하수진, 이경희. (1999). 브래지어 디자인에 대한 시각적 감성연구(제 1보). 한국의류학회지, 23(5), 635-644.
- 한국산업규격의 브래지어 치수규격(KS K 0070, 1999). 한국산업규격(KS) 브래지어의 치수(KS K 0070 : 1999)

한국 여성 가슴 체형 서구형으로 변화한다 (2006. 11. 20). 어패럴 뉴스, p. 9.

한국 여성 가슴 체형 서구형으로 변화한다. (2006. 11. 20). 어패럴 뉴스, p. 9.

한은경, 신정원, 홍경희, 김은애. (2003). 시판 브래지어 날개 소재의 피로도 및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11), 113-121.

홍정민, 이송자, 오화자, 김정원. (1988).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37(1), 421-441.

접 수 일 :
 2009. 08. 19.
 수정완료일 :